

2001년의 새로운 정보혁명에 대비하자

손 정 미
(중랑구립정보도서관장)

들뜬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성큼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온 인류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뉴밀레니엄의 첫해도 두어달 남짓 지나면 2001년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함에 따라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계도 2000년 한해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 중 하나는 선진국들에 비해 약 30%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 도서관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 차원의 정책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01년도 문화예산 가운데 처음으로 지식정보 인프라확충을 위한 정보화추진지원기금으로 349억원이 배정된 것은 우리 도서관계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8월9일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정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신저작권법과 도서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국제소유권기구(WIPO), 문화관광부 주최의 저작권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디지털 네트워크화 된 정보환경 하에서 디지털형식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자료복제의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관여가 요구됨을 인식시켰다. 이와 더불어 순수시민단체인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1개구 1개관 건립계획에 의거 건립예정인 관악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정감 있는 문화공간, 정보제공기관의 건립계획에 공동연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불모지와 다름없는 학교도서관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도서관계가 함께 새로운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언론에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회고하는 뉴스를 방송할 것이며 사람들은 다가올 새해를 설계할 것이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2000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도서관 10대뉴스를 선정하며 지나간 활동의 시간들을 회고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2001년도 새해 설계를 앞두고 우리 도서관계도 예전처럼 선진국들의 발자국만 뒤쫓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의 질적 수준은 미비한 자본과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서로 앞다투어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전에 컴퓨터의 발달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뉴미디어의 발달과 디지털도서관의 등장은 미래정보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정보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뉴미디어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매일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첨단정보 서비스의 등장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다. 뉴미디어가 가져올 또 한번의 세계사의 격변은 우리 도서관에 대한 도전이며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 도서관인은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도서관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